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자본시장 분야)

모두 말씀

2025.12.22.(월) 14:30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성장해 나가는
혁신·벤처기업 분들,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금융투자업권,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전문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과 혁신들을 살펴보면,
그 출발점에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정비,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펼쳐진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Mariana Mazzucato(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Value of Everything」

이러한 공공 - 민간의 공동 혁신 모델은
이미 전 세계의 보편적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잘 구현하는
'플랫폼'이 바로 자본시장일 것입니다.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습니다.
자본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기업, 금융권, 그리고 시장 인프라 기관들이
모두 한 테이블에 모여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하는 안건들도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시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업 그리고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생산적금융의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로 선정했습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난 금요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이어
오늘은 (1)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전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 측면에서는
(2)PEF(기관전용사모펀드),
(3)기관투자자의 투자 원칙을 담은 스투어드십 코드와,
(4)대형IB의 모험자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II 자본분야 생산적금융 정책방향

먼저 정부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19년 증권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된 이후에도 지난 6년간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 수행중

이에 따라 상장주식 및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소규모·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등과 협업하여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PEF(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PEF의 **공과(功過)**,
해외 PEF 규율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PEF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자기 쇄신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제도가 완비돼도 생산적금융을 최종 결정짓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이행점점 체계 마련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면서, 적용범위 확대 등 코드 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형IB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19일, 그리고 12.1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해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영위를 지정·인가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의 경우 앞으로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5개 증권사를 대표님들께서는 3년간 총 20.3조원(신규 공급 15.2조원)의 모험자본 공급방안 등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III 마무리 말씀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라는 상징적 공간뿐 아니라
나스닥 시장, 장기 민간 모험자본 등이 촘촘히 연계되며
'초기기업 → 고성장기업 → 상장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논의내용은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들입니다.

혁신기업, 금융업권, 시장 인프라 기관이 한 뜻으로 뭉쳐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이 우리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자라고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